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외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513호

서기 2005년 2월 16일 (음력 1월 8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17

## 찰나찰나 놓고 하루살이로 살아야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자리를 해 주신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100% 벗어나서 세세생생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유인으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우나 더우나를 떠나 테두리 안의 물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내가 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여튼 어항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이 공부들, 공부하기보다도 생활 속에서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의 도리를 여러분께서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부처가 된다. 벗어나다. 안다 할지라도 놓아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고 아는 것도 물어가면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으니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알아도 질문이고 물리도 질문이예요.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공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라서만이 아니라 알아도 해야 합니다.

단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통 불상을 만 볼을 모셔놔도 하나가 빠지는지, 또 원효 대사가 설총에게 쓰레질을 하라고 그랬을 때에 깨닫게 쓰레질을 해 놓으니까 한 무더기 집어서 흙을 끼얹어 놓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운주사에 천 탐과 천 불이 모셔 있었다고 하는데 공부한 사람들의 의견은 일 불이 있어도 천 불이며 만 불이고 삼 불이 있어도 삼천 불이 될 수 있고 삼만 불이 될 수 있고 삼십만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불, 앉아 계신 불상, 서서 계신 불상, 목이 잘린 불상, 다리가 잘린 불상, 코가 떨어진 불상 등 이렇게 모두 다양하게 계신 원인이, 산중에도 보면 병들은 나무, 죽은 나무, 뼈뿔어진 나무, 폭발로 서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네들의 삼십삼년에 속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한 울름 집어다가 끼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성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흐르면 또 들어오고 흐르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것이 진리지 완성해 놔다고 끝이다 한다면 끝이 아닌 것이죠. 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도 모자람이 아니고 잘해도 잘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지쳐

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항상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게 되면 먹는 거지요. 퉁을 누는데도 뭐야 될까 안 뭐야 될까 하고 퉁을 뉘니까? 일상생활이 그대로 단식이고 그대로 활공법이며 여러분이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도 마음에 관습 집착 욕심이 끼여 밝게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밟을 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대로 모범이고 그대로 활공법임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대로 넘겨할 겁니다. 그래서 단식이란 딱치는 대로 먹되 먹은 사이가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식이란 말을 안 할 뿐 단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몸속의 많은 자생 중생들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혼자 먹는 게 없고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고 혼자 가고 혼자 오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여하게 걸림 없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본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화 중에 본래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인해서 광력 자력 통신력 전력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부자는 가난하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되는 것은 '구경물이 새물로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바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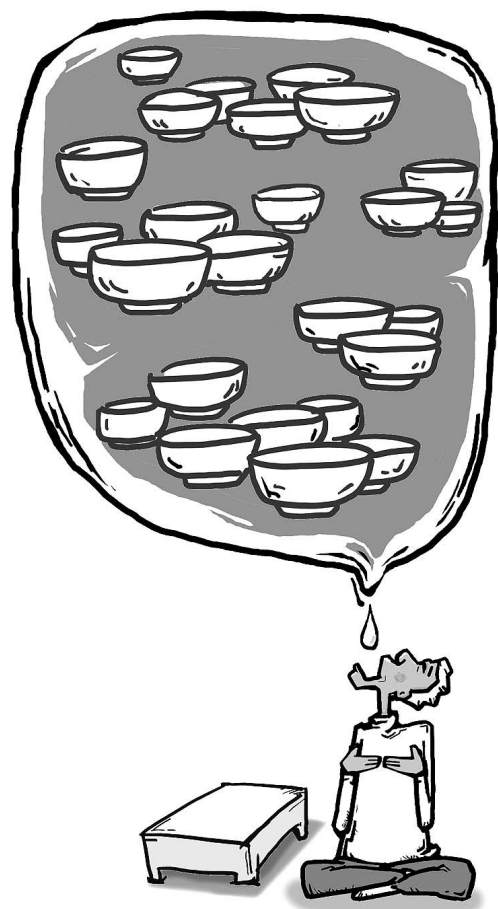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시아를 넓힐 수 있고 넓게 들을 수 있기에 한 걸음 떼어 놓을 수 있고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 반복되는 시점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어야겠죠.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 49년 설해 주신 겁니다.

세상을 보면, 상대를 믿고 상대에게 기도를 하고 상대에게 원을 세우고 상대를 스승으로 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 됩니다.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석존의 육신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세워라 석존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됐다 석존이 됐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꽃이 내가 되고 내가 꽃이 되고 석존이 내가 되고 내가 석존이 되고, 또는 몸 안의 수많은 중생들이 내가 됐다가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사람이 와서 물기를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기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하니까 "올해는 잘 보는 사람이 그러는데 불에 빠져 죽을 운수라고 하면서 조 바깥으로 믿고 이름을 찾는 게 아니고 안으로 만 믿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끌갈 수 있고 너만이 깨우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일거일동 자기가 움직이고 걸음 떼어 놓는 것까지 오로지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도리를 배우고 체화하면서 자꾸자꾸 발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발전이 돼야 지혜도 생기고 마음의 발전이 돼야 창조력도 생기고 마음의 발전이 돼야

말이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도 물귀신이 없습니까?" 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신이 물귀신한테 말린 거지 다른 게 물귀신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물귀신이기 때문에 물귀신이라는 마음에 몸이 말린 겁니다." 그래도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그러니까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중잡은 말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사업이 망해서 훌쩍 넘어가게 생겼는데 한생각을 몰아서 그냥 꼭 하니가 활기를 띄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입니까. 여러분은 한생각을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지만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것은 공력을 말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의식들이 한데 합쳐 주고 일체화 될 때 마음이 한데 합쳐 주는 한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혼자 하고 혼자 살고 혼자 했고 혼자 밟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원리의 물리가 터져서 우리가 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해서 내세를 깨닫는 사실,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밟을 때 놓고 움직여주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듣고 싶어도 혼자 듣고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것, 내가 혼자 봤다 들었다 산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속에서 '어허! 너 아직도 피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작용을 해 주서 네가 다니는 줄 모르고 나를 무시했어? 너 그러면 좀 망해 버라!' 이렇지도 모르지요.

▲질문자: 스님, 한마을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안다는 것과 마음을 본다는 차이점에 대해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다는 것도 아니고 봤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평상시 퉁 놓 때 퉁을 뉘어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뉘니까? 또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하고 먹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대로 스스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보고 듣고 그냥 하고 있지 않아요? 말과 행과 뜻 모두가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니까 한마음을 봐라, 참 마음을 찾아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지요. 자기 참마음과 몸이 돌아다니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질문자: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참마음은 성품의 작용에 의해서만 볼 수 있습니까?

▲스님: 실체가 없는 참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참마음이라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실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동시에 움직여가는 그 자체가 그대로 실체이며 참마음에서 나오는 움직여가미지요.

▲질문자: 상대성원리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스님께서 마음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째 내가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너와 나와 더불어 죽어야 하고, 세 번째는 더불어 나를 즐 알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 유가 유훈 죽이면 무가 되고 유가 무를 살리고 무가 유훈 살리면 그 활공법이 전자의 말씀과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스님: 유무를 같이 동시에 봐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이 활공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쯤해서 활공법이지요. 아까 나를 죽여야 나를 본다 그랬지요? 내가 죽어 모든 것을 놓아 나를 발견하고 내가 탄생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갖나 얻어내야 한다고 해서 첫 번째는 내 자생중생하고 둘 아니게 죽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은 내 자생중생들 나와 더불어 둘 아니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이 나를 깨닫는 법이요 내가 탄생하는 법이요. 두 번째 둘이 아니게 더불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외부의 모두와 둘 아니게 죽는 도리를 알아야 둘 아닌 도리를 안다는 것이고, 셋째는 둘 아닌 도리를 알기 때문에 둘 아니게 나를 줄 알게끔 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슨 소리나 하면 처음에도 죽

### 오로지 주인공 뿌리에서

### 나오는 것임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집을 갖지 말고 공심 공용 공체로 공식화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알게 되면 모두가 유해지고 상대방이 갈고리를 쥐고 찍으려고 하다가도 상대방까지 유해지고 찍으려고 하면 것이 슬슬서 뇌진이다 이 소립니다. 약해졌던 마음들이 선해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회해서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나에게도 이익되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어 인과응보에서 벗어나고 유전성에서 벗어나고 영계성에서 벗어나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균성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업보 속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유스러워진다 이 겁니다. 누가 자유스러워라 자유스럽지 마라 하고 억압적인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구멍이에 빠질 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에서 잘 인도하여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컴퓨터처럼 자기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상대를 원망 안 하고 내 뜻으로 물리면서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 팔았어서 내 뜻으로 들림니까?"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내 뜻이죠. 항상 그런 말 합니다만 내가 초대를 받아 갔는데, 손님이 오신다고 깨우치 물렁스 해 놓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만 물에 미끄러져 곤두박질을 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몇 달을 못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어아 하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나라는 걸 세울 게 없어야 죽는 것이죠. 나라는 걸 세울 게 없어야 둘 아니게 죽어야 저요. 둘 아닌 도리에 의해서만이 여러라는 이름이 나왔고 부처라는 이름이 나왔지, 각각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나를 세운다면 부처가 될 수 없고 여태가 될 수 없고 둘 아닌 도리의 나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 스님께서 법당을 오르내리실 적에 자명등이 서 있습니다. 그 자명등에 불을 붙여 주시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자명등이 될 겁니까?

▲스님: 전부 석등이죠. 석등에 불이 원래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여가지요. 본래 켜져 있으니 그 본래 켜져 있는 광명의 빛을 자기가 응용해서 켜고 끄고 끈이 없이 켜고 끄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명등의 불은 켜다 안 켜다가 없이 본래 켜져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간직하고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못 보고 모르기 때문에 못 쏘 뿐이지, 그 불이 어떤 앞에 자유스럽게 쏠 수 있게끔 켜져 있다는 것을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광력 전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광명등입니다.

### 일거일동 자기가 움직이고

### 걸음 떼어놓는 것까지

쓰러져서 엉금엉금 기어가 조금씩 흐르는 물을 마시는데 한 모금 마시니까 삼천 모금을 마셨다고 하고 또 한 모금을 마시니까 삼천 모금을 마셨다고 하고, 또 한 모금을 먹으니까 두 모금을 마셨다고 하고, 또 한 모금을 먹으니까 세 모금이 아니라 삼천의 모든 물을 다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가도 없는 것이고 와도 없는 것이고 마셔도 없는 것이고 마시지 않아도 없는 것이구나. 이 없는 것 가운데에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구나. 그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만 모습이 다 달라서 천차만별로 각계각층으로 차원이 되고 그렇게 모두 다 다르구나. 다르면서 그 마음은 제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법이 되어서 바깥 현상으로 나오게 되고 현상으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완성을 생각하여 끝을 내려 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에 한 찰나에 놓고 하루살이로 한 찰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시하지 않고 항상 맛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식이라는 게 밥을 굶고 먹을 것을 안 먹는 것이 단식이 아닙니다. 근본 단식은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단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이지 만약 걸음을 걷는 데로 움직이고 왔다면 그런 단식이 아니

# 우리는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서있어

17면에서 계속

▲질문자3: 지난 달에 스님께 말씀드리고 돌아 가면서 느꼈던 게 나도 이 공부를 해서 중생구제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생구제란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무슨 일력을 갖춰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참된 것이 되겠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스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그분들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고 그게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힘을 자신이 스스로 밝혀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니 중생이 부처임을 알아서 부처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구제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아무튼 그날 스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생활에 한번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 주위의 아픈 분들이나 저의 부모님 경우를 믿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됐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안된다고 해서 틀러날 나도 아니고 내 평생토록 말긴 게 다 안된다 하더라도 나와 돌이 아닌 역대 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입증해 해왔고 또한 스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활발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왔는데 잘못이 있다면 내가 잘못을 했는지 그 마음도리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고 내가 과연 무엇이 모자랐고 뭐가 부족했을까? 그것을 고쳐 나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스님께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 다 으스스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더라 다른 병원으로 가기를 권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그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며 두 차례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 입천 데 덮친 격으로 백혈구 수치는 삼만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신지원의 스님들, 그리고 회장님의 주선 아래 처사님이 스님을 친절하게 되였습니다. 친견하고 온 후 제 몸은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백혈구 수치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저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스님을 얼마나 찾으며 주인공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스님! 제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계 해 주십시오.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정말 당신이 있다면 아내로서의 임무와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갈 수 있도록 당신만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주인공을 찾으며 소리가 일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스님! 제가 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제 이웃의 아픔을 알았고 만물만생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워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매달린 의사들이 흥부와외과 정형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분야별로 네 분이냐 됐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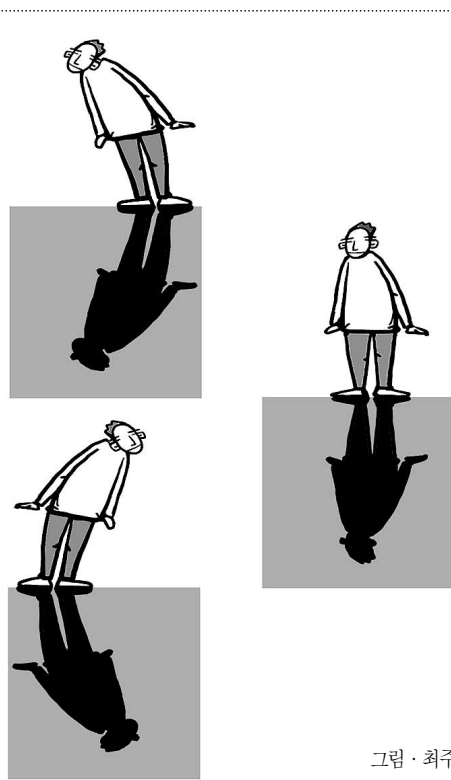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찌 이 법을 알겠습니까? 공대무변한 이 묘법을 어찌 당자들이 알겠습니까? 하면서 주인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지도 못한다 했던 제가 2개월 만에 퇴원하는 영광을 찾았습니다. 제가 스님께, 그리고 우리 법우들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이 딱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원의 스님들, 그리고 회장님 또 수많은 법우들이 저와 함께 항상 한마음으로 이끌어 준 데 대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무지한 저에게 이 법을 가르쳐 주신 큰스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담으로 얻은 이 육신은 오직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한마음법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뿌리만이 나무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봉그리진 뼈가 제자리에 가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태가 잘못 앉았다가 제자리에 가서 앉아 임신을 제대로 하게끔 될 수 있는 것도, 몸을 맘대로 움쭉거리게 하는 것도 자기 뿌리입니다. 자기 주인공 뿌리만이 움쭉거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몸속에 있는 의식 생명 모습들만이 내 몸을 바래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들은 의식들이 내가 주

알기 이전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으로 알아야만 이 진실한 법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앞으로 잘 살겠네요.  
▲질문자5: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인연이 닿아서 올 여름방학 때에 일주일 단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단식에 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한 방법대로 해 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분이 건강환자여서 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서 단식을 좀 더 전문적인 분한테 여쭙어 보고 하지 왜 저한테만 물어보느냐고 하니깐 꼭 그 방법대로 하고 싶다고 하기에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3일 동안 물만 먹고 그 다음에 2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도 조금씩 먹어가면서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상태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주 매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 환자를 낫게 해 줄 힘이 없다고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자꾸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하고 마음이 통하지만 치료는 안되었습니다. 스님,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든지 어떡하든지 그거야 보살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의 단식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전부 작용을 해 주는 요법의 단식이고 음식을 끊어서 단식하는 거는 잠시 몸을 좀 비워서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식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몸을 위해 서 한번 해 보는 단식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단식이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전체가 거기 붙어

## 나라는 걸 세울 게 없어야

▲스님: 땅물을 싫다고 할 때는 설망을 가미하든 스금을 가미하든 가미를 해야 잘 먹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슬쩍 가미를 하라.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불을 켜려면 소켓트도 달아야 하고 이리저리 없어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불을 켜려고 한다면 켜지나, 어디? 그러니까 가미를 해, 하나로, 이 스님도 때에 따라서 풀어다 쓰라고, 가미를 해서 켜야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잖아, 잘해 봐요.

▲질문자4: 저는 질문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 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새 생명을 얻고 환생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스님께 감사드리며 주인공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봄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온 몸이 만신창이 되고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졌습니다. 어깨뼈 갈비뼈 14개, 장 파열과 콩팥 파열 골반뼈 구석구

스님들 모두 한결 같이 저를 지구정성 보살펴 주셨고 또 항상 격려의 말씀을 아까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역시 천사의 손길 바로 그것이었었습니다. 바로 제 주인공의 나뭇잎을 알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어쩌면 아홉마흔네 의사들이 유독 저렇게 지극히 간호를 하느냐고 할 때 바로 제 주인공의 나뭇잎 바로 그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찰사로 얹어매는 팔반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나 높아 지금 못하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면 그 뼈의 조각조각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말씀 드려니 그 뼈의 조각들이 팔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창자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 하라고 하면서 조금만 수치가 낮아지면 수술할 것이니 그렇게 작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래서 '그래 주인공, 이것도 당신이 하는 것이잖아!'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손으로 살며시 팔반뼈를 만져 보니 주위가 딱딱하면서 뛰여 올라온 부분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침을 하니깐 이전 움직이지 않던 겁니다. 뼈가. 그전에는 기침을 하면 근육에 따라 뼈가 움직였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뼈가 제자리로 들어갔는가보다 하면서 다시 사진을 찍고 진료를 해 본 결과 '아마! 안 심하십시오. 뼈가 다 제자리에 제각기 찾아가 들어갔으니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제가 수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는 의사들도 가망이 없었고, 모든 일가친척 주위 사람들 전부 가망이 없다고 한 제가 너무나 급속도로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하자 의사들은 제가 황제거리라고 또 관심거리였는가 봅니다. 의사들은 '아름다운 우리가 의을 배는 데 대한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홉마가 참아주는데 대해 우리는 아홉마가 대단스럽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믿어 좋은 겁니다.' 하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 둘 아니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인공을 진실로 믿고 맡길 때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 그 안에서 통신을 받아 가지고 전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바뀌질 수도 있고 통그리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타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애고든지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질문자5: 오늘날 스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두서없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 하기 이전에는 못 배웠고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법을 받은 뒤부터는 모든 즐거움이나 괴로움도 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겨우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님 법문이나 책자를 많이 보고 절실하게 느낀 것은 머리로

둘어갑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단식의 신호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다 작용을 스스로 해 주게 되었으니까 마음의 단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부처님들께서도 마음의 단식을 권하셨지 먹는 걸 끊어가면서 단식하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섰다고 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이 교차로를 넘어서서 둘 아니게 응용하신다면 앞으로 사는 데 좀 더 편안하게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고 사실 겁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5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이상 55,000원  
 만박스 13KG이상 100,000원

유치으로 맛과 품질을 같이 보냅니다.  
 스템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이 힘입어 금번 두리안 열 대항 주인이기와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무분하지만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아 40토로 금병에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예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http://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당 하 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제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술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백운후 효과 없음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형 특ன்ப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음향연구사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영월,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독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나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썩뜨 죽음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오행 썩뜨기 최후기 전통 좌운법 첨단기술 접목 - 여성 향문 직화, 산후 집 병창과 오실급 등 - 연기, 화상 위험이 없는 썩뜨기, 썩뜨후기 출시 -

**오행 썩뜨기**  
 적용할자리 : 증원혈, 신원혈, 관원혈, 천주혈 (이런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기미, 복부비만, 생리불,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직운기**  
 적용할자리 : 회음혈 (이런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기미, 지질, 생리불, 냉대하, 전립선염, 성기능개선, 신장성파면대장염, 갱년기 장애

**음양 썩뜨기(무량관절염)**  
 적용할자리 : 백화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목비혈, 족삼리 (이런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오실급, 요통, 두통

- 제품의 특징 -  
 \*연기가 100% 심외로 배출된다. \*타이머가 장착되어 편리하다.  
 \*ISO9001 인증제품-썩뜨기, 좌운기 \*썩뜨기 화상위험이 없다.

제품 구입시 즉 한달분 무료 증정 **대리점 · 썩뜨방 모집중**

**D.M.I 산업** 모사포유 [www.moxa4u.com](http://www.moxa4u.com)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대구인의대**  
 인명 지키는 생명과학연구소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